오늘의 게시판

고흥우주항공축제 개막식 오후 5시 고흥군 공설운동장

행사

〈28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김영식(웃음요가연구소장)씨가 '웃음요가를 통한 웃음경영법'에 관해 강연.

▲고흥우주항공축제 개막식=오후 5시 고흥군 공설운동장. '가족과 떠나는 신나는 우주여행 고흥에서 즐겨보자'는 슬로건으로 8월1일까지. 태양계 모형·인공위성 모형·모형로켓 등이 전시되고 우주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주 화장실·우주샤워·우주침대·무중력 체험 시설 등도 갖춰짐.

▲제 118회 강진 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

▲제 2회 지체장애인 여름바다 체험 =오전 10시30분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중증 장애인 등 120여명 참가해 군부대 자원봉사자 도움 등을 받아 수영 및 모터 보트 타기 체험.

▲제 496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대회의실. 김용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보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오전 11시 전남도청 상황실.

〈29일〉

▲제 4회 진도 해변가요제=오후 7시 진도군 고군면 가계해수욕장 특설무대. 한국연예협회 진도지부 주관으로 스포츠댄스·통기타 공연 등.30일까지.

▲제 4회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축제 기념식=오후 6시 순천시 월등면사무소 광장. 복숭아 직판장 운영 및 농악 경연대회 등 행사. 30일까지

▲담양 하루나들이 버스투어=오전 9시30분부터 담양 관광 희망객 45명을 대상으로 식영정·송강정·면앙정·소쇄원 등 정자문화 탐방.

공연

▲김수지 초청 진도 여름 페스티벌=28일(금) 오후 3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20회 토요민속여행=2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새로 시작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단막 창극·씻김굿 등 공연.

▲전남도립국악단 상설공연=29일(토) 오후 5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어린이 연극학교=8월5일까지 민들레 소극장.

전시

▲향덕 서학회전=8월2일까지 메트로갤러리.

▲백일 공예전=8월2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동양화 부채 전시회=28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1전시실.

▲국제판화워크숍=8월 9일까지 우제길미술관.

▲무진서각 전통각자전=8월1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역사속의 오늘

▲작곡가 비발디 태어남(1675)

▲독일의 문호 괴테 태어남(1749)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비스찬 바흐 뇌졸중으로 세상 떠남(1750)

▲프랑스 대혁명 끝남(1794)

▲제1차 대전 시작됨(1914)

▲영국 찰스 황태자 결혼(1981)

뉴스퀴즈

22. 제 43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동원 기록(1천230만명)을 세운 이 영화가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영화는 모두 1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최고 영예인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남우주연상·남우조연상·신인남우상·시나리오상·촬영상 등 7개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① 왕의 남자 ② 너는 내운명
③ 파이스토리 ④ 한반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유명 연예인 파경 잇따라

일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三伏)의 시작인 **초복**(初伏)이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초복인 지난 20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 전국 삼계탕집에는 시민들로 북적댔고, 인터넷에서는 복날 먹고 싶은 보양 식품 및 음식점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았다.

복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은 많았던 반면 저온현상이 계속되면서 복날 이름값은 못했다.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는 날이 잦아 흐린 날이 많고 많은 비로 대기 냉각 효과도 더해져 초복인 20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2.7도, 최대 10도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혼 4년만에 합의 이혼한 미스코리아 출신 전 탤런트 **오현경**(36)씨의 소식도 인터넷을 달궜다.

오씨는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승표 전 계몽사 회장과 지난달 말 이혼에 합의했고, 두 사람 사이에 두살 난 딸의 양육권은 오씨가 갖는다.

아울러 영화배우 설경구(38)씨도 별거 4년만에 7월 초 끝내 이혼에 합의했고, 방송인 허수경씨도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8월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소송을 냈다"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등 인기 연예인들의 파경 소식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다.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3회 **대종상 영화제**에 대한 소식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화 '왕의 남자'가 최우수작품상 등을 비롯, 7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이준기와 강성연은 개인상인 인기상 남녀부문까지 휩쓸었다.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 각각 '왕의 남자'의 감우성, '너는 내운명'의 전도연에게 돌아갔다.

영화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화 **'괴물'**(감독 봉준호·제작 청어람)도 클릭 세례를 받았다. 이미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데다 뉴욕타임스도 봉준호 감독을 인터뷰 기사로 집중 조명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면서 27일 역대 최다 스크린 개봉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괴물의 흥행 성적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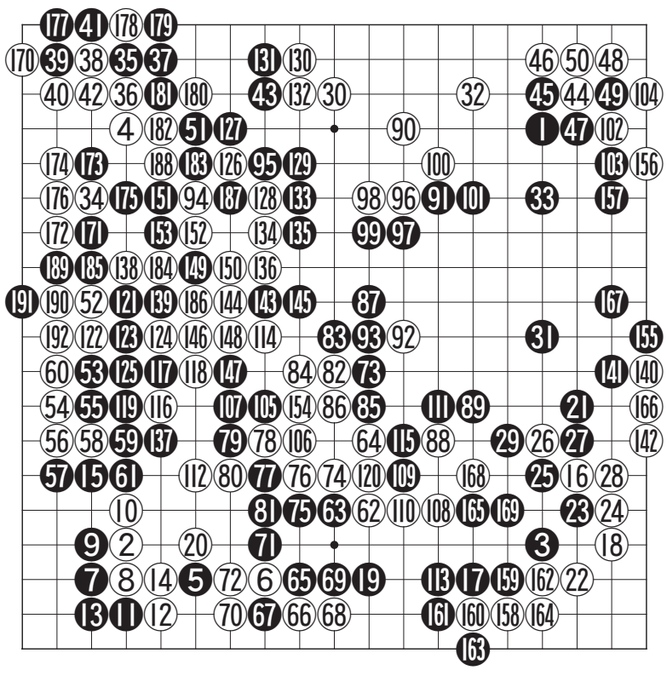
이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치고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한반도'**도 인기를 모았고,가수 겸 탤런트 유채영의 모바일 화보 촬영 소식을 비롯해 MBC 수목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에 출연하는 신인 여배우 **김옥빈**(19)도 배우가 되기 전 실제 가수 활동 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괜찮은 가창력을 지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 검색어 대열에 포함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닷컴 제공〉

1위	초복	6위	대종상영화제
2위	오현경	7위	괴물
3위	한반도	8위	유채영
4위	포도밭그사나이	9위	박철
5위	김옥빈	10위	김옥

27일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깨끗한 마무리' 3회전 총보(1~192)

白 이상의 5단 〈광주시청 A〉 黑 김성호 5단 〈농협〉

2승자끼리 겨루는 3회전은 결승으로 가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개인전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영예가 걸려있다. 그러다 보니 대국자들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마련이다.

내용을 보면 하변 백 20으로 지킨 것이 시기상조로 포석에서 흑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원인이 되었으며 백이 좌변 54로 급습해 왔을 때 58로 받지않고 61로 후수를 잡아 다시 중앙의 주도권을 백에게 빼앗긴 것 등은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5단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원인은 중앙 백 두점을 74로 호구쳐 왔을 때 흑 75로 가는 경직된 행마에 있었다. 이 수로 유연하게 77로 뛰어 공격을 했더라면 백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했으며 흑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는 경험이 풍부한 이 5단의 독무대로 깨끗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승리를 굳혀 나간 솜씨는 눈여겨 볼 만 하다. 백 192 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이세돌, 물가정보배 선승

이세돌 9단이 2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최원용 4단에게 11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세돌 9단은 이날 승리함에 따라 남은 대국에서 1승을 추가할 경우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날 백을 잡은 이 9단은 초반 급전을 유도한 최 4단을 맞아 백 26의 통렬한 강수를 작렬, 일찌감치 기선을 잡은 뒤 유연한 행마로 대국을 마무리했다.

결승 2국은 8월3일 열린다. 우승상금은 2천200만원(준우승 7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음 7월 4일 戊午)

子 36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48년생 새로운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아내의 건강도 살펴보라. 72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84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23, 43

丑 37년생 불연이면 시비에 휘말린다. 49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61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73년생 제사가 불리하다. 85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2, 32

寅 38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50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2년생 흉보다 길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라. 74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수니 준비를 잘하라. 행운의 숫자 : 18, 42

卯 39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1년생 춘화기가 발동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63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75년생 기상천외한 횡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 10, 28

辰 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2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64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6, 41

巳 41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도 들어온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65년생 수족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77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대단히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13, 27

午 42년생 공짜 술에 병이 나니 곁에도 가지마라. 54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78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만은 않다. 행운의 숫자 : 24, 39

未 43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 예의를 지키라. 55년생 무촌의 부부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가 되리라. 67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라. 79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0, 16

申 44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6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68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를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2, 33

酉 45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7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1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행운의 숫자 : 15, 34

戌 46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58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70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82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2, 37

亥 47년생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59년생 일실일득,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83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은 미래의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 08, 3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99>

Forget it!

그만 해!

A:His attitude is so bad, I can't believe it! I will tell the manager.
B:Don't, Kim. That's none of your business.
A:Why not?
B:**Forget it!**

A:그녀의 태도가 정말 못쓰겠던데. 그럴 수는 없는데... 지배인에게 말해야겠어.
B:그러지 말게나, 김씨! 그건 자네 일이 아니잖아.
A:왜 그러지 말란 말입니까?
B:**그만 해!**

I can't believe it! : 믿을 수 없다, 꿈같다.
Forget (about) it ! : (성가신 일에 대하여) 이젠 그만 하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오.
That's none of your business : 자네 일이나 신경쓰게나.
= Mind your own busines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99>

これ 作(つく)ったんですよ

이거 만든 겁니다

A:これよかったら、いかがですか?
B:まあ、きれいな刺繍(ししゅう)財布(さいふ)だこと。いただいてもいいんですか?
A:ええ、どうぞ。**これ 作(つく)ったんですよ**。母(はは)がしていたのを見(み)よう見眞似(みまね)でね。
B:そうですか。とてもきれいですよ。私なんかぶきっちょだから、こんなことできないわ。

A:이거 괜찮다면 어때요?
B:어머! 예쁜 자수지갑이네요. 받아도 됩니까?
A:예, 자. **이거 만든 겁니다**. 엄마가 하던 것을 보고 흉내내며 터득한 거예요.
B:그렇습니까? 정말 예쁘네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건 못해요.

刺繍(ししゅう) : 자수
いかがですか : どうですか
財布(さいふ) : 지갑
ぶきっちょ : 손재주가없음, 서투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17>

我把这个包寄存在这儿，可以吗?

이 짐을 여기에 맡겨도 될까요?

A:我把这个包寄存在这儿，可以吗?
B:可以，您什么时候来取?
A:下午两点钟来取。
B:那时候您拿着这个票。
A:이 짐을 여기에 맡겨도 됩니까?
B:네, 언제 찾으러 오실 건가요?
A:오후 2시에 오겠습니다.
B:오실 때 이 표를 꼭 가져 오세요.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17>

龜 鑑 (귀 감)

거북 귀, 거울 감

귀(龜)는 등껍질로 몸 전체를 둘러싼 거북이 모양을 나타낸 상형문자이다. 감(鑑)은 금(金)+감(監)으로, 감(監)은 물이 담긴 접시(皿)에 사람(人)이 머리를 숙여 눈을 내리깔고(目)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뒤에 청동거울이 사용되자 금(金)을 덧붙였다.

귀감(龜鑑)은 본보기, 모범(模範)의 뜻이다. 거북이 껍질인 귀갑(龜甲)으로 길흉(吉凶)을 점치고, 거울로는 미추(美醜)를 비추므로 모두 규준(規準)이 되기 때문이다. 한자의 가장 오래된 모양인 갑골문자(甲骨文字)도 귀갑(龜甲)과 소 어깨뼈인 수골(獸骨)에 새겼던 문자이다. 따라서 귀갑수골(龜甲獸骨)문자라고도 불린다.

또 거북이는 장수(長壽)하는 동물로 신성시되었다.

벽에 거북의 등딱지 무늬 모양으로 금이 가면 균열(龜裂)이 생겼다고 한다. 균열은 손발의 살갗이 튼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 구워서 생기는 갈라짐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트다'의 뜻일 때는 '龜'를 '균'으로 발음한다. '친한 친구 사이도 돈 문제로 균열이 생긴다'고 표현한 수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